

# 바른미래연구원 뉴스레터

2019년 10월 31일  
www.brmins.or.kr

## 20대 남자 내용과 그 시사점

이선우 인턴연구원  
[lsw0109s@naver.com](mailto:lsw0109s@naver.com)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바른미래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

### 1. 20대 남자 현상이 제기된 배경과 이에 대한 '20대 남자'<sup>1)</sup>의 가설

- 시사인과 한국리서치는 '20대 남성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2030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를 실시 했다. (조사 기간: 2019.03.20. ~ 22)
- 20대 남성 현상은 모든 세대 중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과 동일 연령대라도 성별에 따라 지지율이 2배가량 차이가 나는 현상을 말한다. '20대 남자'는 아래의 가설을 통해 해당 현상을 분석하고자 했다.
- 20대 남성은 보수화되었다.
- 20대 남성은 다른 계층에 비해 공정성에 매우 민감하다.
- 20대 남성은 여성 혐오 성향을 지니고 있다.

### 2. 여론조사<sup>2)</sup> 분석에 따른 해당 가설 검증

- 20대 여성이 20대 남성보다 진보적 성향을 지닌 것은 맞지만 그 수치 차이는 8% 정도에 불과하며 두 계층 모두 보수적인 성향보다 진보적 성향을 가진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20대 남성이 보수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공정 중요도 인식은 모든 연령대의 남녀가 유사하게 높은 수치를 보인다. 즉 20대 남성만 유달리 공정 부분에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대 남성은 보상에 있어 평등 보상보다 차등 보상을 더 선호했다. 이는 20대 남자가 지역·여성 할당제(가산

1) 천관율·정환울 저, 시사IN북 출판 저서.

2) 2019.03.20.~22 한국리서치

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 또한, 현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생각된다.

- 20대 남성도 여성 차별은 문제가 있으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페미니즘에는 강한 반감을 표하고 있다. 즉 20대 남성은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심리는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여성 혐오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20대 남자'의 주안점(20대 남성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 - 20대 남자 내 반페미니즘 집단의 존재 -

- '20대 남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수치는 남성의 25.9%가 극단적 반페미니즘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해당 통계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6문항에 모두 전혀 동의 안 함을 응답한 계층을 추려 판단한 통계다. 반면 여성의 경우, 동일 6문항에 전부 매우 동의로 응답한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즉 20대 남녀 중 '페미니즘' 관련 극단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계층이 많은 쪽은 남성이다.
- '20대 남자'는 25.9%의 반페미니즘 성향 집단이 설문 기관의 질문에 어떤 응답을 보였는가에 대해 주목했다. 그들의 응답을 분석하여 이 집단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 해당 계층의 '결혼을 하면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는 항목에 60.8%가 동의하지 않았으나 '가족을 꾸리는 것은 여성에게 더 유리하다.'는 항목에는 65.2%가 동의했다. 이 점을 두고 '20대 남자'는 이에 대해 이들이 논리적 일관성보다 신념을 바탕으로 사고행위를 하는 성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 - 반페미니즘 집단의 마이너리티 정체성 -

- 해당 계층은 자신을 여성과 부모세대로부터 이중 착취를 받는 계층으로 인식한다. 부모세대와 관련한 설문에서, 그들은 부모세대보다 더 적은 기회를 받았고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기회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응답했다. 즉 20대 반페미니즘 남성 집단은 기성세대가 만든 시스템과 현실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또한, '우리 사회 남성차별이 여성 차별보다 더 심각하다.'는 항목에 100% 동의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정과 대입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리하다고 응답했으며 남녀 간에 법 집행이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불리하다고 응답한 의견이 훨씬 많았다. 끝으로 지금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딸이 더 살아가기 좋을 것이라는 질문에 3명 중 2명이 동의했다. 이는 20대 남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기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 그들은 여성 혐오자나 남성 우월주의자는 아니다. -

- 설문 조사를 분석해보면, 전반적인 20대 남성뿐만 아니라 반페미니즘 성향을 가진 집단을 여성 혐오자나 남성 우월주의자로 규정할 만한 지표는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 이들

은 부모세대의 여성 차별이 심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지원·보상 정책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 남성에게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항목에 83.4%가 반대했다. 이는 20대 반페미니즘 남성 집단이 적극적으로 여성을 혐오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님을 의미한다.

#### -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 -

- 20대 남성 중 반페미니즘 성향을 보이는 집단은 차등 보상을 70.8%가 지지했고 공평 보상은 25%만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정성에 있어 획일적 평등보다 과정의 형평성을 더 중요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해당 계층에서 ‘한국에서 여성 소득이 낮은 이유는 성차별 때문이다’, ‘여성 할당 정책에 동의한다.’는 명제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된다. 20대 반페미니즘 남성 집단은 양성평등 정책을 여성우대 정책으로 인식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배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 ‘20대 남자’는 20대 남성들이 젠더와 권력이 결합한 문항에 민감하게 반감을 표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분석을 전개하고 있다.

#### 4. ‘20대 남자’의 한계점(통계오류, 자료적 오류, 본말전도를 중심으로)

##### - 통계오류 -

- ‘20대 남자’에서는 30대 이상은 기성세대라 판단하여 표본을 20대 남녀와 30세 이상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30대 전 연령층을 4·50대 기성세대와 함께 묶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30·40·50대는 세대 간 큰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성·여성 차별 문제, 페미니즘 문제에도 큰 인식 차가 있다. 그런데도 한 집단으로 묶어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특수성’ 논지를 전개하는 통계분석은 문제가 있다.
- 2018년 12월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따르면 2030 남성의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 평가’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72%, 59% 나왔다. 또한, ‘청년세대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는 둘 다 ‘성 갈등 관련 대응 미흡’을 1위로 꼽았다. 2030 세대 모두 이러한 공통분모가 지표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도 20대 남성에 반페미니즘 정체성 집단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 속하는 남성 집단을 묶고 이 집단과의 차이점을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20대 남자’를 집필한 시사IN과 한국리서치는 208개의 설문 문항 분석을 통해 20대 남자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서에는 80여 개의 문항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선택편향<sup>3)</sup> 가능성을 내포한다.

##### - 본말전도 -

3) 표본을 사전 또는 사후 선택함에 따라 통계분석을 왜곡하는 오류

- ‘20대 남자’는 20대 남성 4명 중 1명이 극단적 반페미니즘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 계층을 중심으로 ‘20대 남성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한다. 추가로 해당 집단에 마이너리티 정체성이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대 남성의 25%가 왜 극단적 반페미니즘 성향을 지니게 되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본지 기사 댓글 중 하나인 “구시대 남자가 얻은 기득권을 젊은 세대는 경쟁해서 얻어야 하니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끼겠지. 구시대 남자들에 비해 의무는 늘고 권리는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거야”라는 의견을 소개하며 20대 남자 현상의 원인을 단순히 마이너리티 정체성으로 환원시키는 기초를 보인다. 이 기초는 20대 남성의 불만을 여성 혐오, 기득권 상실로만 분석하는 기존의 진보 진영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가까운 과거와 비교해봐도 2030 세대의 사회·경제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몇 년 전에도 남아선호사상 같은 통념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청년층의 취업 문은 좁았다. 일부 페미니즘 담론이 부상하긴 했으나 오늘날과 같은 극심한 젠더 갈등과 반페미니스트를 양성하지 않았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그렇다.
- 3년 전인 2016년에만 해도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한 20대 남성 비율은 57.4%로 과반을 넘었었다.<sup>4)</sup> 따라서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성향으로 작금의 ‘20대 남자 현상’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왜 과거와 달리 그들이 반페미니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20대 남자’의 분석은 본말이 전도된 분석일 수 있다.
- **자료적 오류<sup>5)</sup>** -
  - ‘20대 남자’는 크게 2가지 부류의 답변에 주목하여 20대 남자들이 반페미니즘을 논리적 맥락 없이 신념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 ‘남녀 소득이 비슷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의 답변.
  - ‘결혼을 하면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와 ‘가족을 꾸리는 것은 여성에게 더 유리하다.’의 답변.
  - 저자는 ‘남녀 소득이 비슷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라는 문항에 대해 20대 남자 과반수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점을 주목한다. 질문이 당위적임에도 부정적 답변을 할 만큼 반페미니즘을 맹목적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자료적 오류다.
  - ‘공정함’의 정의에 따라 해당 질문의 당위성은 충분히 부정될 수 있다. 가령 ‘성별과 상관없이 역량에 따라 소득이 높은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라는 맥락을 가진 질문으로 ‘남녀 소득이 비슷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는 질문의 당위성은 충분히 반박될 수 있

4) 2016, 양성평등실태조사(여성가족부)

5) 사용된 전제가 결론 근거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할 때 발생하는 오류

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부정적 답변을 했다는 점을 들어 20대 남성이 당위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변 못 할 만큼 반페미니즘에 경도되어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 다음으로 20대 남성이 ‘결혼을 하면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라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가족을 꾸리는 것은 여성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항목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20대 반페미니즘 남자 집단은 논리적 일관성보다 신념을 바탕으로 사고행위를 하는 성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가족을 꾸리는 것은 여성에게 더 유리하다’는 문항에서 ‘유리함’을 ‘사회적 성취에 대한 유리함’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내린 논리적 오류다. 또한, 이 두 문항은 이율배반적 관계를 맺는 명제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결론도 논리적 맹점이 있다.
- ‘20대 남자’는 20대 남자 내 반페미니즘 집단을 논리적 일관성이 상실된 신념형 집단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본 저서인 ‘20대 남자’도 충분한 논리를 바탕으로 20대 남자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

## 5. 20대 남성 현상의 시사점

- 20대 남성 현상 현황 -
- 작년 6월 81%에 달하던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현재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해화역 시위 정부 대응 등의 이슈를 거치며 한 달 만에 64%로 감소한다. 이후 이수역 폭행 사건, 각종 여성 할당제 도입 등을 겪으며 지지율은 크게 하락해 지난해 12월에는 29.4%를 기록했다. 그 후로도 20대 남성 지지율은 30% 권에 머무르고 있다.
- 진보 집단의 반론에 대한 반론 -
- 진보 집단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즘 정부를 주창하긴 했지만, 여성 친화 정책을 펼친 적이 없기에 20대 남성 지지율의 하락과 페미니즘은 하등 관계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비정규직 등과 같은 경제 문제에 있음을 주장한다.
- 진보 진영의 페미니즘·20대 남성 지지율 무관론은 성 갈등 이슈의 민감성을 무시한 판단이다. 실제로 2018년 12월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성 갈등 관련 대응 미흡’을 청년세대 지지율 하락 요인 1위로 꼽았다.
- 젠더 갈등 이슈의 공정성 의제를 잘 파고든 바른미래당은 해당 시기에 20대 남성 한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점은 젠더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20대 남성 지지율과 큰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 실효적 여성 정책이 없었기에 페미니즘과 낮은 20대 남성 지지율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현 정부의 청년 정책이 남녀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또한, 진보 집단의 의견은 20대 남성과 여성의 압도적 지지율 격차와 일부 모순된다.

### - 메리토크라시적 관점에서 본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성향 -

-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했다.<sup>6)</sup> 메리토크라시란 일종의 성과주의로 능력이나 실적에 따라 지위나 보수가 결정되는 사회체제를 말한다. 한국은 사교육에서 취업까지 극심한 경쟁을 겪는 사회이기에 메리토크라시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무임승차에 대한 혐오가 극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맥락으로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체성을 분석할 수 있다. 20대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거나 육아·출산 등 사회 구조적으로 피해를 받는 여성을 구제하는 일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페미니즘을 주창한 정부가 내세우는 양성평등 정책을 무임승차자 양성책으로 인식하여 반감을 표하는 것이다.
- 정부와 여성계는 남성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평등한 사회가 도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대 남성은 스스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20대 시절의 일부를 징병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것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군대로 인해 사회진출에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으로 포장된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분노한다. 20대 남성이 본인들이 역차별이 아닌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 -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체성은 사회 병리적 문제 -

- 20대 남성은 징병제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로부터 이미 남성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여성 할당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성세대의 정책 기조는 기성세대에 있었던 여성 차별 문제의 책임을 왜 지금의 20대 남성에게 돌리려는 정서적 반감을 갖게 한다.
- 20대 남성들로 하여금 지난날 있었던 가짜 미투 운동, 무고죄 폐지론은 공정한 사법 원칙에 대한 불안감을, 정부 각 부처가 제시한 여러 여성 할당제는 공정성에 대한 경각심을, 해화역·이수역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정치적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20대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성향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이념대립 성격을 가진다.
-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편익이 증대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 20대 남성들에게는 단순히 양성평등의 탈을 쓴 여성 우대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정책의 실효와 대중의 인식은 괴리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유형의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 남성들이 반페미니즘 성향을 갖는 것은 무임승차 문제(할당제), 법 원칙(무고죄 폐지론) 등에 있으며 남성 혐오에 대한 반발심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크다. 정치권은 이러한 여론을 단순히 여성 혐오자로 낙인찍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투쟁으로 인식하지 말고 실효적 문제해결을 위한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

6) 탈진실 시대의 정치: 우리 안의 그들과 적, 김만권, 2019